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가 경험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구*

정은지** · 최상배***

Staffs' Difficulties and Requirements on Operating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Jeong, Eun Ji** · Choi, Sangbae***

요약

[목적]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았다. **[방법]** 이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개 시·도 거점센터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 7명과 업무 경험자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6개의 상위범주, 15개의 하위범주, 41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은 첫째, '근무환경의 어려움'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으로 예산부족, 지원환경의 제한,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관련자의 이해부족 및 인식부족, 환경 상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는 첫째, '전문 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으로 청각장애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수어통역사, 교육청능사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업무담당자와 특수교사의 연수 확충을 요구하였다. 둘째, '행·재정적 지원'으로 업무전담팀 및 파견교사 배치를 위한 제도의 개선,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였다. 셋째, '인식과 소통의 개선'에서는 교사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열린 자세 및 청각장애이해교육, 학생 정체성 함양교육, 학부모 인식개선교육, 의견교환 및 소통의 장 마련, 홍보 및 전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 연구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 되었지만 운영 상의 많은 어려움과 요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연구는 향후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taffs' difficulties and requirements on operating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Method]**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predecessor and 7 staffs who are working at the 6 ones among 16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nationwide. **[Results]** The difficulties of staff 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were firstly 'difficulties in working environment', which were lack of expertise in the education of hearing-impaired students, various and heavy workloads,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Second, 'difficulties in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 supports' resulted in difficulties due to lack of budget, limited support environment, and lack of user's understandings. Third, 'difficulties in adaptation to school and operation of learning support program' were due to lack of administrator's understanding and difficulty. Next, requirement of staff 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were firstly 'experts placement and professional improvement', which required the placement of teachers with education experience of hearing impairments,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educational audiologists,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the extension of training of staff and special teachers. Seco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required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placement of task operation team and itinerant teachers. Third,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communication' was an open attitude of teachers toward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educations on hearing impairments, the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parent's awareness, exchange of opinions and preparation of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improvement of PR and delivery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have various operation difficulties and requirement for improvement, and this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operation of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Key Words :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Inclusion for Deaf students,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청주산남초등학교 특수교사
Teacher, Sannam Elementary School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sbchoi@kongju.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 Kongju National University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 특수교육통계[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3,225명이며, 이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09명, 특수학급을 포함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특수학급 717명, 일반학급(전일제통합학급) 1,77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이 27명이다. 이 통계자료를 볼 때 전체 청각장애학생의 약 78%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2006년에 발표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16]에 의하면 특수학교에 재학한 청각장애학생이 1,526명, 일반 학교에 재학한 청각 장애 학생이 1,280명으로 일반 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은 약 46%였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약 10년 사이에 특수학교 재학생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일반 학교에 재학한 청각장애학생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 많이 배치되는 이유는 신생아선별검사 시행, 인공와우 착용 증가, 보청기 기술 발달,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강조, 부모의 요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통합교육 현황과 적절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각장애학생이 완전통합을 받는 경우 주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일반교사지만 일반교사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교사 역시 청각장애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은 장애영역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발급되고 있어서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지니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1]. 우리나라는 아직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교육 수어통역사 제도에 대한 법률이 없어 교육 수어통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3].

미국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교수, 동반입학(co-enrollment), 교육 코디네이터, 수석교사, 순회교사, 청각서비스, 수어통역, 속기서비스, 정체성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서[4],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청각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동반입학 프로그램, 구어사용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수어와 이중 언어 접근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1]. 일본에서는 난청학급과 통합학급 지원을 통하여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각특별지원학교에서는 상담, 학교 컨설팅, 개별지도, 강사 파견, 청력 측정, 보청기 지원, 발성·발화 훈련, 문식성 지도를 하고 있다[18].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을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연수, 교수방법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순회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로 명시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였다[13].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중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그 중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 교육청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2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일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연계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6].

기존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외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독특하여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지원을 제공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지원하여 이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5]에 의하면,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첫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 발견, 둘째, 최신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교육, 셋째, 통합학급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서비스, 속기 서비스 제공, 넷째, 통합학급 청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구축 및 학습 멘토링 지원, 다섯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여섯째, 일반 학생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18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와 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19]. 하지만 아직까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교육 교사자격제도가 없어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청각장애교육 전문가가 아직 배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들이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의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16개 시도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개 시도 소재의 청각장애 및 시·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7명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업무 경험자 1명, 총 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힌 대상자 중에서 센터중심형과 특수학교 연계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목적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지역, 총 교육경력, 업무 담당 경력, 소지자격,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형태는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rea	Staff	Total career	Career in charge	Possessive position	Operating patterns of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for the Hearing impaired
1	A	3	3	Special education teacher	Center based type
2	B	3	2	Special education teacher	Center based type
3	C	17	1	Special education teacher	Center based type
4	D	5	5	Sign language interpreter	Center based type
5	E	10	1	Special education teacher	Special school based type
6	F	20	5	Special education teacher	Special school based type
7	G	17	4	Special education teacher	Special school based type
8	H	16	3	Special education teacher, Sign language interpreter	Special school based type

연구 도구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절차에 따른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맡아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어려움, 자신의 의견, 요구 등을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의 구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6]의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면담 가이드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Guide Questions

Counselling Topic	Questions
Information for the partici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your total career? -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working 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for the Hearing Impaired? - How ha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assignment been done? - What are your expertise and qualifications related to your job?
Difficulties to operate in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your duties besides the center? -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working at the center? -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support? - What difficulties do you have when supporting those who have a hard time in school? -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learning support? - What other difficulties do you have in managing the center?
Request for operating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support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 What are the requirements when you support for school adaptation? - What are the requirements when you support for learning? - What do you want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 What do you want from regular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 What are the other requirements for operating the center?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 what you want to say.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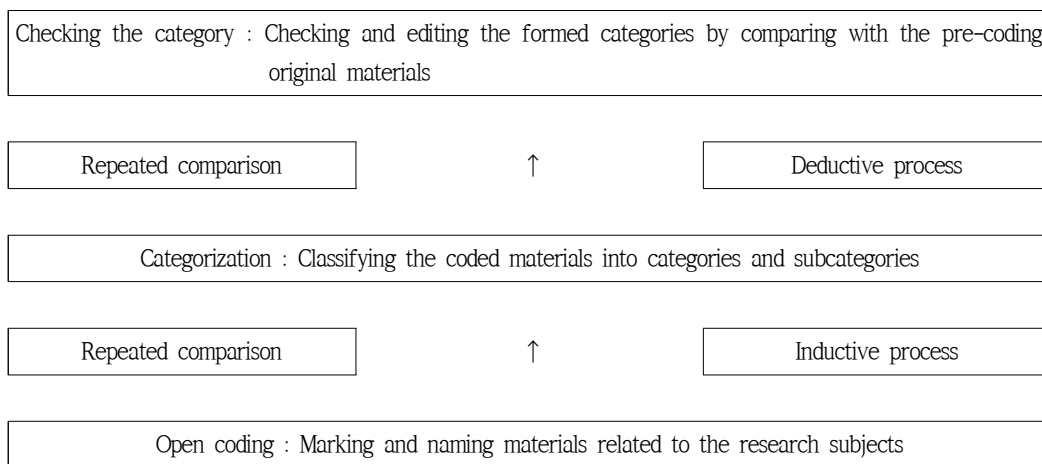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2018년 4월 2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전화로 연락하여 섭의를 하고 면담 질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다. 센터로 연락을 하여 업무담당자와 연결하였음을 알리고 면담을 실시하기 전 전화로 센터의 기본정보를 수집 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일정을 조율하여 면담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면담 시기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개인 당 1~2회를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60분에서 90분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취하였고, 면담 내용의 보안과 익명성 보장을 확인해 주었다. 면담 시 하지 못했던 답변이 떠오르면 E-mail이나 휴대폰 문자, 전화를 활용하여서 수시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락하여 면담 내용을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한 당일에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작업인 개방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비슷한 코딩의 이름으로 분류한 자료를 상위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 범주화,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인 범주 확인 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였다[22].

먼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한 자료를 한글워드프로세서 2014로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원자료를 출력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여백에 단어나 어구로 코딩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Excel 2016을 이용하여 코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비슷한 주제의 자료끼리 모아 목록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모인 자료를 읽으면서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범주명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곳은 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Figure 1> Procedure of constant comparison method[22]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

이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중간에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연구 윤리를 문서화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전사 자료에 기호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이후, 분석한 자료를 수시로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하며 상세한 검토의 기회를 가진 후 연구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 녹음파일과 전사 자료들을 휴대폰, 컴퓨터, USB드라이브, 웹 드라이브에 파일로 저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정기적인 면담 및 연락을 통해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의 적합성을 협의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연과 지적을 통한 추적감사를 활용하였다. 추적감사는 연구자의 선입관과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미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12],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함께 원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물 분석과 분석적 메모 등을 함께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체 6개의 상위범주, 15개의 하위범주, 41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1)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은 ‘근무환경의 어려움’,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의 3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3개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 9개, 의미단위 27개로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Difficulties of staff 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Upper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ing units
Difficulty in working environment	Lack of staffs'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Teachers' lack of experience in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Lack of expertise due to foster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a school level
	Excessive work and manpower shortage	Assigning diverse tasks besides their own roles in the center
		Difficulties in long-distance support
		Burden from the lack of human resources
	Lack of center advertisement staffs'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between center and user
Difficulties in promoting due to limited communication methods		
Difficulty in assistive technology device and related service support	Lack of budget	Difficulties in purchas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covering repair costs
		Difficulties in covering personnel expenses for sign language and text interpretation
		Limited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tores and difficulties in providing repair services
	Professional absence in the center	Limitations on support due to the severality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Personnel's lack of expertise to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Lack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in the center in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Difficulties in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can realize related services
	Lack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n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eachers' lack of understanding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Parents and students' hesitation to us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Parents and students' lack of managemen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lack of interest
		Parents' misunderstanding and excessive demands
		Teachers' passive attitude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hearing impairment
Difficulty i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operation of learning support program	Lack of understanding on hearing impairment	Parents and students' passive attitude and lack of interest
		Parents and students' hesitation to reveal disabilities and use sign language
		Parents' distrust to teachers and various demands
	Difficulties on continuous support and constraint of environment	Lack of continuous support system
		Environmental Limit of the Center
	Difficulties of learning support	Limitations on supporting learning due to full integration of students
		Limitations on providing mentoring and career and job counselling programs
		Absence of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1) 근무환경의 어려움

센터 중심형과 특수학교 연계형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업무담당자의 청각장애 전문성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 경험 부족, 업무의 과중함과 인력 부족, 센터 홍보 부족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드러났다.

가. 업무담당자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센터 중심형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은 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규 배치를 받거나 교육 경력이 많더라도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고, 특수학교 연계형 업무담당자들도 청각장애 학교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다.

저는 여기 발령을 받고 나서 정해져 있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식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규교사라서 그랬고 사실 제가 청각장애 담당이기는 하지만 다른 특수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각장애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A)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영역별 전공이 아닌 유·초·중등의 학교급별로 전공을 나누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저 전문가 아닌데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그냥 특수교사였는데 이 학교로 왔을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청각장애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청각장애학생을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E)

나. 과도한 업무 및 센터 내 인력부족

업무 담당자들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한 추가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의 다른 업무 또는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업무에 추가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일을 맡고 있었다.

중등 진단평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원하고 있고요. 중등 순회교육 나가고 있고요. 그냥 다른 센터보다 업무가 하나 더 주어 진 거예요. (B)

일반학교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생에게 가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다.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업체와의 일정을 조정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소홀히 할 경우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본인이 학교의 교사인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일도 해야 되면서 또 센터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센터일과 지역 특성상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혜택이 가려면 저희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니 와서 받으세요.”라고 하면 거의 안 받으세요. ... (중략)...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문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E)

다. 센터의 홍보 부족 및 의사소통 어려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는 일반학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제3자 입장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 교사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려우며,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일반교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어머니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 중간에 학교에서 굉장히 난처해하더라고요. (A)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지원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공문, 홍보 리플릿, 소개 책자, 메일, 메신저, 전화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주고받는 주요 수단은 공문이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부모와 학생에게 안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프로그램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운영이 힘들다고 하였다.

학교 측에 요구를 했을 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C)

(2)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일차적인 지원 영역은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를 구입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부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관련서비스 설치 환경 상의 어려움과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환경의 어려움,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가. 지원 예산 부족

많은 청각장애학생들이 지원을 요청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를 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희 쪽으로 돈이 내려와요. 청각장애학생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라고 돈이 내려오는데 보통 두 개 지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지원 신청을 하죠. (B)

수리는 못할 것 같아요. 수리하는데 1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수리 비용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H)

수어통역사, 속기사의 인건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지원이 어렵고, 공식적인 행사나 연수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속기) 지원을 하는 데도 인건비, 기자재 부족, 설치 환경상의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속기지원을 지속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속기학원에서는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학원생이 안정된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를 원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예산 때문에 주당 몇 시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들을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F)

우리나라에서 FM송수신기를 구입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고, 외국제품은 보상 서비스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회사가 한정적이에요. 약간 좀 독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B)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 학생이 사용하는 제품과 귀의 특성에 따라 개인에 맞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한다. 1년을 대여해준 뒤 반납을 해도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해 비싸게 구입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였다.

귀에 맞춰서 본을 떠서 해야 하면 그 학생만 그걸 쓸 수 있는데... ...(중략)...그러면 다른 학생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A)

나. 센터 내 전문가 부재

청각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각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품을 구입하거나 학부모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은 그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교사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F)

센터 내 전문인력의 부재로 보조공학기기 관련 지원을 나가거나 문의가 오면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청능사가 함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점도 업무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센터 내에 청능사가 없다보니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자꾸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고... (E)

문자통역서비스와 원격속기지원서비스는 관련된 기자재와 수업하는 교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문자통역을 할 때도 Wi-Fi가 지원되어야 하는 환경이어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수업에 또 들어가고 기기도 또 학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협조해 주셔야할 게 많거든요. (B)

다. 사용자의 보조공학기기 이해 및 인식 부족

업무담당자들은 주로 과목별로 교사가 바뀌는 중·고등학교에서 통합학급 교사가 부담감, 번거로움을 느끼고 학생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 송신기를 착용하지 않아 기기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용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도 잘 모르세요. (C)

청각장애학생이 청소년기 학생인 경우 자신의 장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가 가진 청각장애를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애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FM 시스템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F)

어머님들은 수어통역사나 문자통역, 속기지원 등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끔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거 저 주지 마세요'라고 하세요 (D)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 시 부모가 관심이 없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대여가 아니라 소유물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 자신의 자녀가 무슨 모델을 쓰는지, 무슨 인공와우를 쓰는지 모델 자체를 모르세요. (E)

최근 어떤 부모님은 보청기를 대여가 아니라 사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G)

(3)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대상 연수, 부모 대상 연수, 부모 상담, 청각장애학생 대상 정체성 함양 교육,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교우관계 개선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심 부족, 교사와 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이해 부족, 다양한 지역적,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 교사나 부모의 장애 이해 및 인식 부족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수교육 실행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생각보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D)

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가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수어와 특수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 받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특수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청각학생들은 외적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체험활동 나가는 것도 ‘절대! 진짜 우리아이 절대! 티내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A)

학부모님들은 특수학교하면 바로 수어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B)

업무담당자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과 교사들의 인식개선이라고 하였다. 일반교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들도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생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일반교사에게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해야 하고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님들도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 달라.”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계속 요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면 우리 애한테 혹시나 해가 될까봐 말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C)

나. 지속적인 지원 어려움 및 환경의 제약

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체험활동과 같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교사의 장애인식 개선 노력에 비해 현장의 변화가 적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일회성 교육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은 한 번에 그치는 거? 그건 모든 장애이해 교육의 특징이기는 하지만요. 정말 아이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잖아요. (B)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해서 일은 똑같이 이렇게 해도 결과가 너무 아무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하는 사람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이중고가 생깁니다. (G)

센터의 위치와 학생들의 학사일정, 센터의 퇴근시간 등 다양한 환경과 여건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희 센터 위치가 좀 편향이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오기에는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여서요. 그리고 저희 퇴근시간이 6시니까요. 그 전에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는데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오면 거의 못 오는 거예요. (B)

다. 학습지원의 어려움

청각장애학생은 다른 장애학생에 비해 완전통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가 완전통합 되어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습지원 같은 거는 없어요. 직접 나가서 제가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통합을 받는 경우에 센터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지원해요? (H)

학습지원에는 멘토링,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 어렵고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치우쳐져 있다고 느꼈다. 또한 계획은 구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업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멘토링이라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대학생들도 이제 거의 무료 봉사나 마찬가지로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한테 과외수업 같은 거잖아요? 사교육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더라고요. 크게 효과를 얻기도 어려웠어요. (D)

진로가 중·고등학생들 위주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좀 덜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문의는 영어듣기, 음악 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평가관련 사항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센터로 평가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주로 평가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음악을 하는데 이때 청각장애 아이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거 물어보시고요.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규정이 두루뭉술해요. (B)

2)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에 대한 구성요소는 ‘전문 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지원’, ‘인식과 소통의 개선’의 3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3개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 6개, 의미단위 14개로 도출 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Requirements of staff at the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hearing impaired

Upper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ing units
Arrange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and professional improvement	Placement of professional in the center	Plac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and educational audiologist in the center
		Placement of teachers with education experience of hearing impairments
	Expansion of staffs' professionalism	Operating programs linked to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Expansion of training the enhancement of staff's competency
		Expanding training and workshops to build capacit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System reform	Arranging a task force
		Establishing personal system for arranging dispatched teachers
	Budget support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Expansion of budget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support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opulariz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support
Improvement of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Education for disability understanding	Teachers' open minds who us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s teaching tools
		Education on understanding of hearing impairment for general teachers
		Education on identity-making for students and awareness improvement for parents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Providing an occasion to share user experiences and opinions
		Improving PR and delivery system

(1) 전문 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센터 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였다. 전문 인력이란 교육청 능사, 수어통역사, 청각장애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확충과 같은 전문성의 신장을 통해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내실 있고 전문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가. 센터 내 전문가 배치

업무담당자들은 센터 내 교육청능사와 수어통역사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수어통역사를 센터에 배치하면 수어통역사가 수어교육, 행사 수어통역, 학급 내 수어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어, 외부기관의 수어통역사를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각 관련 전문적인 분야를 교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 내에 교육 청능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F)

청능사 자격을 가진 분이나 수어통역 자격을 가진 분이 배치 되면 장애이해교육도 그 팀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은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는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 청각장애학교의 교사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진짜 전문가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 생각예요. 농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청각장애학생과 교사를 찾아가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A)

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또는 위탁 사업을 통하여 센터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효과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청각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의 중요한 사업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다 병행하기는 힘들어서 진단검사나 장애이해교육 같은 경우는 ○○ 청각언어 복지관에 저희가 MOU 맺어서 그 쪽에서 대신 나가서 해주시고 상담과 진단검사도 거기서 해주시고, 결과처리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예산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G)

업무담당자들은 특수학급 교사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교사, 학부모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하였다. 또한 센터 업무담당자들은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이해교육,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관련 연수, 수어연수 등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수교사에게는 특수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청각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장구의 사용을 교육했으면 합니다. (F)

특수교사가 일반학교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특수교사가 있는 데에는 그래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B)

청각장애학생을 맡으신 특수학급 선생님들에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보니 특수학급 선생님 역할이 크더라고요. (G)

(2) 행·재정적 지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업무전담팀, 파견교사 배치와 같은 행정적인 제도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 예산 확충,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가. 제도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와 특수학교의 수업, 학생관리, 학교의 업무를 하면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교사를 지치게 하며,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담당자의 성취감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시·도마다 전환센터에는 센터 운영 담당교사 외 전담인력이 따로 채용되어 있죠. 청각장애 거점 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왕이면 그 인력이 청각장애 분야에 전문적 역량을 지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F)

저는 계속 이 센터에 다른 팀이나 인력을 교육청에서 보강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G)

특수학교 연계형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자체 인력으로 센터 업무를 해야 해서 센터 교사의 업무가 많고 해마다 업무가 바뀔에 따라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파견교사의 형태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이 보충되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였다.

교육청에서 파견교사 제도를 시행하듯이 저희가 사립이긴 하지만 지원 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저희 센터에 파견교사 형태로 충분히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

나. 보조공학기기 관련 예산 지원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이해교육, 진로·직업 체험 및 캠프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만으로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예산이 확충되어 많은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FM 시스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조공학기기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B)

국산 FM보청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잘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돼서 좀 그게 좋다고 하면은 국산제품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H)

학령기 아동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나 인공 와우 구입 시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F)

(3) 인식과 소통의 개선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은 교사, 청각장애학생 당사자, 학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 연수, 학생의 정체성 함양 교육,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연수를 통해 청각장애학생의 내실화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가.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기기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FM 시스템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이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담임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의 협조가 중요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선생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해요. 교사라면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H)

일반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은 다른 일반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센터 업무종사자들은 일반교사의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알려줘도 선생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느껴진데요. 부모님을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담임교사,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

업무담당자들은 교우관계 향상을 위해서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생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각장애 정체성 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부모 연수를 통해 자녀가 청각장애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부모로서의 역할, 수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희망하였다.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청각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안내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

나. 홍보 및 의사소통 기획 마련

센터 업무담당자는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지원과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집합연수보다는 개별적인 상담형태의 소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교육이나 진로상담처럼 상담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편하게 좀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G)

시·도별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은 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희망하였다.

교육청마다 공유가 된다면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뭐 우리랑 안 맞는 거는 도움을 받는데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C)

저희는 교육청에서 좀 연계를 해서 청각장애학생들 모아서 연수나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도 교육연수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G)

논의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이 실제로 느낀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았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은 청각장애와 관련된 전문성과 청각장애 교육 경험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학교급별로만 발급되며 장애영역별로는 발급되지 않고 특수교사로 통합하여 발급되고 있다[1].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청각장애교육 전공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1, 17].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은 업무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특수교사가 청각장애, 보청기와 인공 와우, 수어통역, 문자통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세분화하여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청각장애 교원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양질의 청각장애학생 지도 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현 시점에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이 있는 교사는 청각장애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현실성이 있다[4]. 청각장애학교 교사 또는 청각장애학교 근무 경력 교사를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도 교육청 별로 청각장애학교가 사립학교만 있는 경우 국·공·사립 교사의 파견 및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각장애 전공 특수교사 만으로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청능사,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과 같은 청각장애 관련서비스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들이 팀접근을 실시할 때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과 상담이 원활해진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은 행정 및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0].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근무 여건 상 기존의 직무와 특성이 다르고 수행해야 할 직무가 많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9].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종사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도 전체의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을 한 곳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장거리 지원의 어려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와 기존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어 학교와 학부모, 학생에게 센터의 지원 내용을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어렵고,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가 부담을 느껴 연락하기 곤란한 위치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일반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통합교육 지원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다[20]. 또한 고가의 청각 보조공학기기 장치 구입비, 수리비, 관련서비스 인건비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인공와우 장치의 교체와 관련된 경비의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2], FM 보청기 지원과 사용을 강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7].

마지막으로 업무담당자들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일반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청각장애학생과 학부모는 청각장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각장애이해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교사들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청각장애유아의 성격에서 오는 어려움, 청각보조기 사용 어려움, 교사의 태도 및 청각장애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청각장애유아가 통합교육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7].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은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완전통합을 받아 학습지원이 어렵게 되거나, 학급의 친구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19]. 따라서 담임교사, 과목별 교사, 학부모가 청각장애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7].

결론 및 제언

결론

위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은 근무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지원 시 겪는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겪는 어려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근무환경의 어려움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 소통 및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에서는 예산부족, 지원환경의 제한,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에서는 관련자의 이해부족 및 인식부족,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겪는 환경상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는 전문 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지원, 인식과 소통의 개선 요구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문 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에서는 청각장애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수어통역사, 교육청능사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업무담당자와 특수교사의 연수 확충을 요구하였다. 둘째,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업무전담팀 및 파견교사 배치를 위한 제도의 개선,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인식과 소통의 개선에서는 교사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열린 자세 및 청각장애이해교육, 학생 정체성함양교육, 학부모 인식개선교육, 의견교환 및 소통의 장 마련, 홍보 및 전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제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각장애교육 교사 자격증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장애 통합형 특수교사 양성제도로는 전문화된 양질의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부, 대학원 또는 심화과정 연수과정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시적 입장에서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는 청각장애학교 교사 또는 청각장애학교 근무 경력 교사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센터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청각장애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 외 다른 업무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사가 교육청능사,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청각장애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팀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시·도별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센터 별 보유 보조공학기기 보유대수 및 관련서비스 지원 현황, 배치되어 있는 전문 인력, 필요한 예산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배부되고 전문 인력 보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및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지원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

- [1] Choi, S. K. (2002). The attitudes of the teachers for hearing impaired toward school level based teachers licences for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7*(3), 119-142.
- [2] Choi, S. K. (2010). The tasks and prospects on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South Korea.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 1-21.
- [3] Choi, S. B. (2012). The Qualitative Research on Reality and Future Direction of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3), 55-77.
- [4] Choi, S. B., & Lee, H. (2015). Inclusion supports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6*(1), 1-18.
- [5]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Workshop for empowerment of staff at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6]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7). *Guidebook for characterize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for the hearing impaired*.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7] IM, M. (2012). *Study on satisfaction of school life of hearing-impaired children under integrated edu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8] Kang, K. & Choi, S. (2009).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2*(3), 19-45.
- [9] Kim, H. (2014).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nd support needs on the job performance activity of special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0] Kim, J., Lim, H., & Kim, K. (2014).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1), 321-338.
- [11] Kim, S., & Choi, S (2009).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reality,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0*(4), 471-490.

- [12] Kim, Y.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 1: Bricoleur*. Paju: Academy Press.
- [13] Kwon, S. (2015). *A study on the extent of satisfaction of teachers with the use of FM Hearing Aid by hearing impaired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of Education.
- [14] Lee, H. (2017).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 study of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general educa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5] Ministry of education (2019). *Statistics for speci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1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7] Park, B., & Cho, Y. (2012). Present inclusive conditions of hearing-impaired preschoolers and needs of parents by parent interviews. *Special Education, 11*(1), 33-57.
- [18] Park, K. (2016). The Implications of inclusive education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Based on the analysis on practical cases in Japa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7*(2), 59-81.
- [19] Park, K., & Park, M. (2018).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upport request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9*(3), 1-22.
- [20] Seo, J., & Yoo, E. (2014). Survey on the understandings of general classroom teacher about educat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upporting the teacher of a inclusive schoo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2), 203-230.
- [21] Spencer, P. E., & Marschark, M. (2010). *Evidence-based practice in educating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2] Yoo, K., Jung, J., Kim, Y., & Kim, H.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 Young Story.